

전북대 창업지원단, 교육·투자 '탄력'

전북도-효성-창조경제혁신센터-SJ투자파트너와 협약 창업 활성화 위해 2억원 투자... 창업 문화 기반 조성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더욱 동력을 얻게 됐다. 이는 전북도와 기업 등이 도내 창업선도대학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창업지원단은 21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북도, (주)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SJ투자파트너스와 창업선도대학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기관들은 도내 창업선도대학 3개 대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업 성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선도적 창업 문화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발굴 육성과 성장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연계지원 및 후속지원을 포함한 사후관리 등 기업을 위해 확약 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업무협약 및 투자확약은 전라북도 창업기업 육성과 지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전라북도, (주)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SJ투자파트너스의 아낌없는 투자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창업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21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북도, (주)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SJ투자파트너스와 창업선도대학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 '앞장'

도교육청, 공모전·토론회 개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의 날을 앞두고 기념 공모전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오는 4월 2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해 학생인권 토론회와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친구 사이를 뜻하는 4월 2일을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도 학생인권의 날을 앞두고 토론회와 공모전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9회 학생인권 토론회는 4월 2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학생인권, 100인의 이야기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우리는 확고한 성을 거부한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학교',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을 주제로 한 분임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은 도내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UCC(학생, 교직원) ▲그림(학생) ▲웹툰(학생) ▲글(학생) 등 4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작품접수 기간은 4월 5일까지다. 수상작은 4월 10일 공문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 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근거해 학생인권의 날 및 학생인권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1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지원단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교육 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지원단은 도교육청 2명, 도청 2명, 중간지원조직 4명 등 8명으로 꾸려졌으며 각

시·군 지역단위 추진단의 구성과 각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도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워크숍 추진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방향 ▲마을학교 운영 방식 ▲연수 및 컨설팅 계획 ▲성과 평가 방법 등이 논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교육모형을 만들어 지역의 교육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지역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성공적인 교육협력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복지부,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검토

퇴원 정신질환자, 진료 병원에서 방문진료 등 사후관리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의료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

르면 복지부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료인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마련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법적으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사실을 지역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없어 치료와 임의로 중단되거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일정기간을 정해 해당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존 병원이 사후관리까지 맡는 방식이다.

일정기간 의사나 사례관리사가 방문

진료하거나 환자를 병원으로 오도록 해 관리를 지속한다. 퇴원 후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현행법상 테두리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들이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뉴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한다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공포식 개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축하하고, 제정 의미를 널리 알리는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23일 2층 강당에서 '학교자치조례 공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다.

또한 학교자치조례를 이해하고, 학교자치조례의 안착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과정 돌아보기, 교육감 인사, 축사 및 축하영상 상영, 학교자치조례 낭독·공포식, 특강 등으로 이어졌다.

김승환 교육감과 학교장, 교직원, 학생대표 등이 조례를 함께 읽고 실천을 다짐하는 공포식은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또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학교문화의 재구성'과 학교자치 실현과제 특강은 학교자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한편 지난 2월 1일 공포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인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가 안착되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전경.

전북 체육 꿈나무들 지원에 '과란불'

군산·익산·완주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사업 선정·예산 확보

군산스포츠클럽 등 도내 3개 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군산스포츠클럽과 익산스포츠클럽, 완주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의 '2019 선수재능개발지원 및 스포츠클럽 선수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지도활동 등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지역 내 선수재능개발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군산스포츠클럽(폴프·탁구)과 익산스포츠클럽(축구·펜싱)은 선수재능개발지원과 선수육성 선정사업에 모두 선정 돼 각 1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선수육성 선정사업에 이력을 올린 완주스포츠클럽(농구)은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한체육회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사업기획과 사업운영(종목 운영계획·지도자 활용방안 등), 기대 효과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전북체육회 최영원 사무처장은 "도내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지역 스포츠클럽이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델 구축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